



한인소망교회 비전

마태복음 11:28-30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Hope Church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 아가페홀	11:00 am

수요대학 / 본당	8:00 pm
금요기도회 /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 아가페홀	12:0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HOPE
CHURCH
STAFF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유초등부	(청빙중)
영유치부	
사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휴무장로	오귀록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이덕홍 이창진 정 민 이종학 윤순화
찬양인도	황규식
지휘자/서무	박은실
반주자	노윤실 사모 (1부, 새벽) 김은화 이화니 (2부)
통역자	김예람 이화니
방송	조준한 김예람

열방을 섬기는 이들

MISSIONARIES

태국	배종원	도미니카	이광호
중국	이주애	북한고아	Cross Mission
케냐	이영규	방글라데시	임대휘
칠레	황신재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모로코	김영목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HAPPY
FATHER'S
DAY!

THANK YOU

한인소망교회
6.19.2022

레위기의 리더 III

1부 9 AM 2부 11:00 AM

LIVE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www.hopestl.org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98번 아버지 주일 Parent's Day
참회의 기도	이사야 Isaiah 44:22
찬송	찬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같이
기도	윤순기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 찬송	찬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레위기 Leviticus 10:1-11 OT p 159
말씀	"레위기의 리더 (3)" / 김성직 목사
Sermon	Leaders in Leviticus (3)
* 결단의 찬양	찬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같이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다.

거짓 회개의 또 하나의 종류는 일반적인 죄에서는 돌아섰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죄로부터는 돌아서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절반 회개' 라고도 부르는데, 거짓 회개이다.

-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거짓 회개와 구별되는 뚜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 심령이 낮아진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그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죄가 자신을 온통 더럽혔으며,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할례 받지 않은 심령에 칼을 그어서 그 심령이 낮아진다. 이 때 칼에 베인 마음은 마치 바위가 산산조각 나듯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 심령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결국 이것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죄로 인해 낮아진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마련하신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진정한 회개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 자신의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며, 심령의 변화가 있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죄에서 분명히 떠나게 된다. 죄인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이 죄를 벗어 버렸다는 증거이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살기 위해서 분명하게 돌아선 증거이다.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히 고백한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인정한다.

이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복음의 순종'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 심령에 부패성이 남아 있고,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된다. 그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체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순종은 구원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드리는 순종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3)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만 교수의 “52주 스터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발췌해서 나누는데요, 늘 내 안에 있는 신앙부터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3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질문 87. 명예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 구원의 은혜
회개는 순수한 구원의 은혜이다. 회개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의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자신의 눈앞에 보여야 할 수 있다. 전적으로 성령이 영

적인 눈을 열어 주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도 없다.

- 회개의 종류
회개에는 생명에 이르는 참 회개가 있는 반면에 거짓 회개들도 있다. 거짓 회개 중에는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슬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율법적 회개가 있다.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은 죄를 고백하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이다.

출애굽 당시의 바로가 그러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죄를 고백했다. 그러나 우박 심판이 지나가자 다시 죄를 지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알고 후회했지만 죄에 대해서 통회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 나오지 않았다. 벨릭스 총독은 믿음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율법적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만 단지 마음의 괴로움에 불과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해 진정한 슬픔이 없는 것이다.

자신이 병들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그 무거움으로 슬퍼하는 경우도 거짓 회개이다. 아합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썼지만 자신의 마음을 찢지는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지만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도 거짓 회개이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해 책망한 말을 달게 받았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것이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아버지 주일 Parent's Sunday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이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
니라

[다같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제목 PRAYER REQUESTS

[월요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화요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수요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

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목요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금요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는 "영적인 취함에서 깨어나, 맡겨진 이들을 사명 따라 지키는 예배자 리더"입니다. 나는 혹시 무언가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리더는 아닌지, 나는 진정 내 보석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 있는 리더가 맞는지, 나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세요.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 리더"입니다. 나는 늘 성경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리더가 맞는지, 나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리더가 맞는지, 나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

Jun 19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헌화
	윤순기장로	모로코 구역 (6월)	봉사부	김예람 자매	

Jun 26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헌화
	윤순화장로	모로코 구역 (6월)	봉사부	이화니 자매	

향기로운 예물 6/12/2022

주일	\$710	선교	\$20	주일학교	\$0
십일조	\$1,846	구역선교	\$400	첫열매	\$80
감사	\$520	작정 헌금	\$100	칠레 특별헌금	\$ 100
건축	\$0			작정헌금	\$ 100
				헌금총액	\$3,696.00

헌금외 수입금

				합계	
				입금총액	\$3,696.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ttp://hopestl.org/online-donation>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1) '매일 큐티하는 삶': 이제 새벽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토, 6AM)

(2) '성경 읽기':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읽기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3) '신앙서적 읽기': 안내포스터와 신간서적 책장이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사무실(박은실권사님)에 연락주시면, 개인이 한 번에 한 권씩 2주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4) '기독교영화 보기': 지난 목회자컬럼을 참고해 주세요.

2. Driveway 심방

코로나19의 상황에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먼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3. 소망반 모임 시간 수정

매주 화요일 11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4. Happy Father's day

모든 아버지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보내세요.

기도구역

중국 구역 (임병갑 구역장)과
이주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최길자 (이승은 집사) 권사님
가정 위해서